2010 3월호 제420호

주부교실

사단법인 전국주부교실중앙회
NATIONAL COUNCIL OF HOMEMAKERS' CLASSES

본회는
주부의 사회성을
개발하고, 봉사정신을
함양함으로써
가정과 지역사회의
복지향상에 기여하며,
민주시민으로서의
주부에게 부하된 사명과
역할을 체득 실천함에
있어 주부중심,
지역중심의 조직 및
활동전개로 새 주부상을
정립해 나간다.

월간 주부교실 3월호

발 행 일 : 2010. 3. 20
등 록 일 : 1972. 8. 31
등록번호 : 라-1616호

✱발 행 : 사단법인전국주부교실중앙회
발행인 : 이윤자
편집인 : 박인례
담 당 : 원혜진
주 소 : 서울시 중구 충무로 5가 19-3
전 화 : 2265-3627, 3628, 0637
2266-5870, 2273-6300, 2485
F A X : 2279-9341
http://www.nchc.or.kr
✱인 쇄 : (주)헤럴드미디어
대표 박 행 환

비매품

생각해봅시다	4	이 봄에 주부들이 행복해야 할 이유 / 구본영
가격조사	6	전통시장, 대형마트, 슈퍼마켓간 가격비교
실태조사	8	'반찬 덜어 먹기' 실천하는 음식업소 23.1%밖에 안 돼
고발사례	10	소비자의 소리 / 오성희
소비자경보	12	'헬스 회원권' 소비자피해 크게 늘어
	14	신종 보이스피싱 극성, 소비자 주의!
소비자정보	16	에너지 다소비 가전제품, '개별소비세' 부과
	17	온라인 유통에 떠오르는 '신 소비족(族)'
수필	18	요즘CF / 이세기
음식이야기	20	황사에 좋은 웰빙 식품
생활정보	22	원자력의 역사
문학산책	24	이달의 읽을 만한 책
지부소식	25	전국 16개 시 · 도 지부 및 232개 시 · 군 · 구 지회 소식
주부교실게시판	34	『전국주부교실지도자대회』 및 『주부대학 개강』

〈표지사진 : 2010년 세계 물의 날 기념 심포지움(중앙회, 2010. 3. 22),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경기도지부, 2010. 2. 8)〉

이 봄에 주부들이 행복해야 할 이유

구 본 영 / 서울신문 논설위원

살아 계시든 돌아가셨던 어머니를 떠올리면 괜히 가슴 한편이 뭉클해지는 게 대한민국의 보통 중년들의 보편적 정서가 아닐까. 남녀를 불문하고 말이다.

필자도 예외가 아니다. 농사를 짓다 직급이 높지 않은 공무원 생활을 하며 온가족을 부양해 낸 아버지의 노고에 어찌 감사하지 않으랴. 하지만 어머니의 수고는 필설로는 표현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오죽하면 "어머님의 희생은 가없어라."라는 노랫말까지 있겠는가 싶다. 5남매의 '진자리 마른자리'를 갈아 뉘는 전업주부로, 때론 이런저런 부업을 하느라 허리가 휘어질 정도로 헌신하시던 모습을 반추할라치면 저절로 눈시울이 뜨거워진다.

굳이 이 자리에서 새삼스럽게 유교문화의 뿌리인 효(孝)의 중요함을 일깨우려는 게 아니다. 어줍게 개인적 효성을 자랑하려는 의도는 더더욱 없다. 한 가정의 아내와 어머니로서 1인 다역을 해야 하는 주부로서의 한국 여성의 삶은 그 누구든 고단하기 짝이 없다는 점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런 냉엄한 현실은 통계수치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난다. 지난 3*초 여성정책연구원이 여성부 의뢰를 받아 발표한 '성 평등지표 개발 및 측정방안 연구' 결과를 보면, 2008년 현재 한국의 성 평등 점수는 0.594점이었다. 완전한 불평등은 '0', 완전한 평등은 '1'로 놓고 점수를 계산한 결과다. 그 동안 한국사회의 여권이 많이 신장했다고는 하나, 한국 사회의 성 평등점수는 100점 만점으로 보면 60점에도 못 미치는 꼴이다.

특히 부문별 성 평등지수를 보면, 보건이나 문화 정보, 그리고 경제활동 부문에 비해 가족부문에서 상대적으로 더 낮았다. 요사이 대학 이상의 고등교육에서 여성이 두각을 나타내며 '알파걸'이란 신조어가 나올 정도가 아닌가. 올해 사상 처음으로 여학생 대학진학률이 82.4%로 남학생 진학률을 근소하게나마 앞섰다는 통계도 있다. 교직은 물론이고 사법시험이나 행정 · 외무고시에서 여성 합격비율이 눈부시게 높아져 가고 있는 게 보편적 추세이기도 하다. 그런데도 가족 부문에서 유독 성 평등지수가 낮다는 것은 한국의 주부의 짐은 여전히 짊어지기에 버거울 정도로 무겁다는 얘기다. 맞벌이를 해도, 혹여 운이 좋아 외조를 잘하는 남편을 만났나 하더라도 육아와 가사노동은 여성들이 더 많이 부담해야 하는 현실을 반영하는 셈이다.

이처럼 한국 주부들이 행복해할 만한 현실적인 근거를 찾는 일이 쉽지 않을 수도 있다. 알파걸 신드롬에서 보듯이 우리 사회 각 분야에서 개인적으로 빛나는 성취를 이룬 여성이거나, 혹은 '피겨 여제' 김연아를 키운 그녀의 어머니쯤 되면 몰라도 말이다. 물론 설령 그처럼 가진 것이 많은 여성이라고 반드시, 언제나 행복한지는 알 수 없는 일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 땅의 보통주부들이 행복해야할 권리만큼 행복해야 할 이유도 많다고 본다. 국제여성인권단체인 '이퀄리티 나우(Equality Now)'는 3월8일 세계 여성의 날을 앞두고 내놓은 보고서에서 여성의 법적 지위가 과거보다 개선된 31개 나라에 한국을 포함시켰다. 하지만 이런 사실을 위안 삼으라는 말이 아니다.

어차피 이 세상 그 누구라 하더라도 고만고만한 고민거리를 안고 있는 게 아닌가. 철학자 칼 포퍼도 일찍이 "인생은 문제해결의 과정"이라고 갈파하지 않았던가. 누구에게나 행복은 여행의 종착역에서가 아니라 여정 속에 발견될 수 있다는 긍정적 사고를 권하고 싶다. 인류 문명사의 큰 흐름이 여성의 권리와 삶의 질이 개선되는 방향으로 잡혀 있고, 한국도 더디지만 그런 흐름을 타고 있다면 비관해야 할 이유는 없을 것이다.

우리말 토끼풀은 영어로는 클로버로 불린다. 이중 네잎 클로버는 나폴레옹이 전쟁터에서 신기해하며 허리를 굽혀 따려다 총알을 피할 수 있게 됐다는 비화가 전해지면서 '행운'의 상징으로 여겨져 왔다. 하지만 필자는 서울 인사동의 한 음식점 벽에서 이보다 더 재미있는 글을 읽었다. 즉, 클로버의 꽃말이 본래 '행복'인데 사람들은 굳이 '행운'을 상징하는 네 잎 클로버를 찾는 데 여념이 없다는 내용이었다. 세 잎 클로버는 주변에 지천으로 널려 있는데도 말이다.

그렇다. 이 땅의 여성들, 특히 가족을 위하여 몸 바쳐 일하는 보통 주부들에게 이렇게 외치고 싶다. 어느 새 우리 곁으로 찾아온 새 봄에는 그대들이 행복해야 할 이유는 충분하다고. 물론 요사이 "너무 헌신하면 헌신짝 된다."는 말로 가족, 특히 자녀들에게 너무 매달리다 노후에 후회하지 말라는 권면을 하는 이도 있긴 하다. 하지만 가족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헌신하는 것조차 행복을 추구하는 과정의 일부로 여기면 안 될 것인가. 다만 그 과정에서 짬을 내 자신만의 삶을 가꾸는데도 소홀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 말이다.

로마의 시인 호라티우스도 이렇게 강조하지 않았던가. "카르페 디엠!" 즉, "내일만 믿지 말고 오늘도 즐겨라."라고. 찰나적 향락에 젖으라는 뜻이 아니라 매 순간 열심히 살면서 그 과정에서 작은 생활의 기쁨도 놓치지 말라는 메시지다. ■

전통시장이 가장 저렴,
대형마트와 슈퍼마켓간 가격차 거의 없어

– 서울 시내 생필품 판매업소 40곳, 25개 품목 가격 비교 –

최근 대형마트 간 가격경쟁이 본격화되고, 매장별로 동일 제품에 대한 가격도 천차만별을 보이고 있어 제품 구매에 앞서 소비자들의 꼼꼼한 체크가 필요하다. 이에 본회에서는 지난 2월 18일 서울시내 대형할인마트, 일반슈퍼마켓, 전통시장 총 40곳에서 25개 품목을 대상으로 가격비교조사를 실시해 각 업태별 가격경쟁력 파악 및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선택에 도움을 주고자 했다.

◈ 대형마트와 전통시장간 비교 : 전통시장이 9.0% 더 저렴해

전통시장과 대형마트에서 각각 25개 품목을 구입해 가격 평균을 비교한 결과 전통시장이 181,866원, 대형마트 199,808원으로 전통시장이 9.0% 저렴했다.

25개 품목 중 전통시장이 저렴한 품목은 총 15개 품목으로 콩나물(중국산) 50.7%, 닭고기 27.9%, 감자 26.0% 순이었고, 대형마트에서 저렴한 품목은 총 10개 품목으로 고추장 14.0%, 밀가루 13.9%, 설탕 12.2% 순이었다.〈표1 참조〉

◈ 대형마트와 슈퍼마켓 간 비교 : 대형마트가 0.1% 저렴, 가격차이 크지 않아

대형마트와 수퍼마켓 간 조사대상 25개 품목 평균 구입가를 비교한 결과 대형마트 199,808원, 슈퍼마켓 200,024원으로 가격차이가 0.1%로 별로 크지 않았다.

25개 조사품목 중 수퍼마켓이 저렴한 품목은 총 8개로 쇠고기 11.8%, 배(신고) 18 .3%, 닭고기 14.1% 순이었고, 대형마트가 저렴한 품목은 총 17개 품목으로 세제 47 .2%, 양파 18.3%, 밀가루 16.5% 순이었다. 〈표2 참조〉

◈ 결 론

생필품 25개 품목의 가격평균을 비교한 결과 전통시장이 가장 저렴했고 대형마트, 수퍼마켓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 대형마트에서 판매되고 있는 묶음상품과 대용량 제품들이 낱개제품보다 오히려 더 비싼 품목들이 있었으며 대형마트와 수퍼마켓 간 가격차이도 0.1%에 불과해 소비자들의 합리적 구매태도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과일이나 쇠고기 등 농수축산물의 경우 업태별로 제품 질의 차이가 심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단순 가격비교만을 하기 보다는 질을 고려한 소비자들의 합리적 선택이 필요하며, 더 나아가 충동구매와 과소비 우려가 높은 대형매장 이용보다는 가격면에서도 큰 차이가 없는 동네 수퍼마켓 이용으로 지역 단위의 유통구조 개선에도 관심을 보이는 똑똑한 소비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최애연 / 중앙회 소비자국장〉

<표1>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가격비교

전통마트에서 더 저렴한 품목			
품 목	가격차(%)	품 목	가격차(%)
콩나물(중국산), 400g	50.7	미용티슈(유한킴벌리)-250매x3개들이1팩	10.9
(생)닭고기-1kg 백숙용	27.9	돼지고기-600g 삼겹살	10.2
감자-1kg	26.0	양파-1kg	8.7
쇠고기-600g 등심	22.3	계란-30개일반란	5.3
배(신고), 300g	19.2	치약(페리오)-160g	4.4
애호박-1개	19.2	커피(맥심오리지널, 리필), 500g	2.3
식용유(CJ)-1.8리터	17.7	깐마늘-500g	1.8
샴푸(엘라스틴)-780g	16.4		
대형마트에서 더 저렴한 품목			
품 목	가격차(%)	품 목	가격차(%)
고추장-1kg 청정원	14.0	두부(풀무원), 340g	4.1
밀가루(CJ)-1kg	13.9	된장-1kg 해찬들	2.6
설탕-1kg CJ	12.2	우유(서울우유), 1L	1.7
라면-1개 신라면	10.7	사과(부사), 300g	1.4
쌀(일반미), 20kg	4.6	세제(비트)-3.2kg	0.3

<표2> 대형마트와 슈퍼마켓 가격 비교

슈퍼마켓에서 더 저렴한 품목			
품 목	가격차(%)	품 목	차이(%)
배(신고), 300g	18.3	애호박-1개	11.4
(생)닭고기-1kg 백숙용	14.1	식용유(CJ)-1.8리터	6.7
쇠고기-600g 등심	11.8	미용티슈(유한킴벌리)-250매x3개들이1팩	5.8
사과(부사), 300g	11.7	돼지고기-600g 삼겹살	4.8
대형마트에서 더 저렴한 품목			
품 목	차이(%)	품 목	차이(%)
세제(비트)-3.2kg	47.2	콩나물(중국산), 400g	6.3
양파-1kg	18.3	고추장-1kg 청정원	5.9
밀가루(CJ)-1kg	16.5	깐마늘-500g	4.4
라면-1개 신라면	13.0	샴푸(엘라스틴)-780g	4.0
설탕-1kg CJ	12.7	쌀(일반미), 20kg	3.2
된장-1kg 해찬들	12.3	두부(풀무원), 340g	3.0
감자-1kg	10.7	우유(서울우유), 1L	1.6
커피(맥심오리지널, 리필), 500g	9.2	치약(페리오)-160g	1.2
계란-30개일반란	7.2		

‘반찬 덜어 먹기’ 실천하는 음식업소 23.1%밖에 안 돼

– 구미, 안동, 포항 등 3개 지역 299개 음식업소 대상 –

버려지는 음식물쓰레기를 돈으로 환산하면 연간 수 조원에 이른다고 한다. 이에 본회에서는 지난해 구미, 안동, 포항 3개시 299개 음식업소를 대상으로 〈음식물쓰레기 발생요인 및 배출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실천 방안을 모색하고자 했다. 다음은 실태조사 내용 일부를 요약한 것이다.

◈ 음식물쓰레기 관리 소홀, 대부분 민간업체에 처리 맡겨

조사 대상 업소 299개소 중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사업장 205개소 중 191개소(92.7%)가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 이행계획 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음식물쓰레기 관리대장 비치 여부에 대해 77개(37.6%) 업소만이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관리대장 작성 여부에 대해선 40개(19.5%) 업소만이 작성한다고 답했다. 감량의무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음식물쓰레기 경우 업소 스스로 감량 또는 재활용하거나 적정한 처리업체 등에 위탁하여 재활용하도록 할 의무가 있는데, 음식물쓰레기 처리 및 재활용방법에 대한 조사결과, 감량의무사업장 205개소에서 자가처리하는 업소는 22개소(10.7 %), 위탁 처리하는 업소는 183개소(89.3%)로 나타났다.

◈ 업소 45.5% “주메뉴 외 반찬수 6개 이상”, 소형찬기 사용 미흡해

각 음식업소별로 제공되는 주 메뉴에 대해 1인분의 양이 적정한가라는 조사에 대해 조사 대상 업소 299개 업소 중 38개소(12.7%)에서 1인분의 양이 많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된 요리와 함께 나오는 부식류의 수량에 대해 평균 ‘3가지 이하’가 62개소(20.7%)로 나타났으며, ‘6가지이상 업소’가 136개소(45.5%)로 나타나 전체적으로 반찬 가짓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음식물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복합찬기 및 소형찬기 사용여부에 대해 조사 대상업소 299개소 중 복합찬기를 사용하는 업소는 한 곳도 없었으며, 소형찬기를 사용하는 업소도 99개소(33.1%)뿐이었다.

◈ 남은 음식 포장되지만, ‘반찬 덜어먹기’ 실시하는 업소 23.1%밖에 안 돼

남은 음식물 포장 여부에 대해 252개(84.3 %) 업소는 포장이 가능한 반면, 불가능한 업소는 44개소(14.7%)로 나타났다.

반찬 덜어먹기를 실시하는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 뷔페식 음식업소 10개소(3.4%)에서만이 반찬류를 뷔페식으로 제공하고 있었으며, 일부 반찬 덜어먹기 실시여부에 있어서는 59개소(19.7%)만이 실시하고 230개소(76 .9%)에서는 실시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별 주문량 조절가능 여부에 대해 메뉴판에 구분되어 있거나 주문 시 조절이 가능한 업소는 197개소(65.9%)이고, 102개소(34.1%)는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 업소 대부분 음식물쓰레기 감량 홍보물 비치하고 있지 않아

식재료를 구입한 후 어떻게 보관하고 있는가라는 조사에서는 대부분의 업소에서는 소분하여 사용량별 보관하거나 당일 사용치만 구입하여 보관하고 있었지만, 26개(8.7%) 업소에서는 여전히 구입순서 없이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사용하지 않는 식재료는 그대로 버려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음식물 쓰레기 발생 억제를 위한 홍보 차원에서 각 음식업소에서는 관련 홍보자료를 비치하고 있는가에 대해 84개(28.1%) 업소만이 관련 포스터, 표어, 문구 등을 부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결 론

조사결과, 음식업소 대부분이 음식물쓰레기 감량화에 대한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지만 실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남은 음식물을 포장해주는 음식업소는 예전에 비해 많아졌지만, 근본적인 감량화 실천방법인 ‘음식물 덜어먹기’와 ‘복합찬기 및 소량찬기 사용’ 등을 실시하는 음식점이 20~30%밖에 되지 않고 있었다. 더욱이 주메뉴 외 부식류의 가짓수가 ‘6가지 이상’인 음식점이 많아 음식물쓰레기 발생의 주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따라서 음식물쓰레기 배출량 감소는 소비자뿐만 아니라 업소측의 적극적인 노력과 실천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며, 관계 기관은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실천 모범업소에 대한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및 지속적인 홍보 강화에 힘써야 할 것이다.

〈박영숙 / 경상북도지부 사무국장〉

소비자의 소리

효과 없는 다이어트 식품 반품요청 거부해

내용 작년 11월 중순경 인터넷을 통해 다이어트 식품에 대한 상담을 신청하였고, 이후 방문한 상담원을 통해 200만원 상당의 한방 다이어트식품과 호르몬제를 구입하였다. 약품 복용 후 설사를 하여 구입 후 이틀 만에 계약해지를 요청하였으나 12월 19일까지 복용하고도 효과가 없다면 환불해주겠다고 구두 약속하였다. 이후 매일 아침마다 전화상으로 해당 판매업체의 영양사가 시키는 대로 정해진 해당 식품을 복용하였으나 오히려 살이 2kg이나 더 증가했고, 체질에도 맞지 않는 듯해 내용증명서를 작성해 계약해지를 요청하며 비용 환불을 요청하였다.

해당업체에서는 미개봉된 제품에 해당하는 금액 100만원만 환불해주겠다고 하였지만, 실상 복용한 약은 몇 알밖에 되지 않으며 계약 해지 요청시 효과가 없다면 환불해주기로 약속하였고, 더구나 식품에 별도 표기가 전혀 없어서 영양사가 계속적으로 관리해주지 않은 이상 어떻게 먹는 식품인지조차 모르기 때문에 개봉된 제품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개봉된 제품 중에서 개별 포장된 제품까지 모두 포함하여 환불을 받을 수 있도록 본회에 도움을 요청하였다.

처리 먼저 소비자에게 청약철회 기간이 경과된 후 단순 소비자 변심에 의한 반품의 경우 통상적으로 처리가 어렵고, 미개봉된 제품에 한해서 반품 가능함을 알렸다.

그러나 소비자의 경우 청약철회 기간 내 환불을 요구했고, 그 과정에서 해당 판매업체가 구두상으로 환불을 약속하였으므로 전액 환불을 해주거나 개봉된 제품 속에 들어있는 미개봉된 개별 포장제품들에 대한 환불, 남은 식품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요구하였다. 한편, 해당 업체측은 계약 해지시 반품된 개별 포장 제품들은 모두 소각 처리되어 재판매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영양사의 별도 관리가 불가능함을 주장하였다.

이에 본회가 업체측과 소비자간 중재로 미개봉된 개별포장 제품에 대해 추가 환불해 주고, 소비자가 추후 혼자서라도 개봉된 식품을 이용할 수 있게 남은 식품 사용법을 소비자에게 이메일 발송하기로 하였다. 더불어 소비자는 이후 남은 식품으로 인한 다이어트 효과에 대해 이의 제기하지 않기로 서면 약속을 받고 총비용 114만원을 환불하는 것으로 처리했다.

분실된 택배물건, 손해배상 처리 지연돼

내용 인터넷몰에서 소화전 캡을 구입 신청해 택배로 받기로 하였으나, 택배회사로부터 배송 도중 제품이 분실되었다고 하였다. 해당 택배업체가 물품 비용 308,000원을 배상해주겠다고 약속하였으나 2달이 지나도록 배상을 해주지 않고 있다. 업체에 배상 관련 전화를 하면 확인 후 연락을 주겠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어 빠른 처리를 위해 본회에 도움을 요청하였다.

처리 해당 택배사에 소비자의 불만사항을 알려주니 관련 사항이 이미 접수되어 있는 상태로 30분 이내로 소비자에게 배상 처리 가능일자를 알려주겠다고 하였다. 소비자에게 확인하니 업체로부터 아무런 연락도 받지 못하였고, 이후에도 업체로부터 연락을 받은 적이 없음을 재차 확인했다.

해당업체에 배상 약속 지연의 부당함을 알려 빠른 배상처리를 요구하니 3월 10일 자로 비용 입금 처리를 약속하였고, 3월 10일 입금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인터넷으로 구입한 의류, 환불 요청 거부해

내용 포털사이트에서 운영하는 카페 내 개인이 운영하는 쇼핑몰에서 청바지를 3 9,000원에 구입하였다. 택배비 2500원 지불하고 금일 물품을 수령해 확인해 보니 의류 사이즈가 맞지 않아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거부해 본회에 도움을 요청하였다.

처리 해당 쇼핑몰에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에 따라 물품 구매 후 7일 이내에 청약 철회가 가능함을 알리고 물품에 대한 환불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쇼핑몰 운영자는 공지사항에 제품 사이즈 교환은 가능하지만, 환불은 불가하다는 내용을 미리 고지하였고 소비자도 충분히 내용 확인 후 구입하였기 때문에 환불해 줄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공지 내용의 부당함을 안내하고 환불 재요청한 결과, 반품 택배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하고 반품 의류 상태를 확인 후 환불키로 약속하였다. 이후 의류 비용 39,000원 입금 처리됨을 확인하였다.

부당하게 청구된 휴대폰 이용료 환불 지연돼

내용 우연히 통장의 예금계좌를 조회하던 중 지난해 10월 모르는 번호의 전화요금 2만원이 인출된 것을 1월 중순경에 확인하였다.

해당 통신사에 연락하니 잘못 청구된 비용이라면서 환불해주겠다고 약속하였으나 한 달 이상이 경과되었는데도 아직까지 비용 환불 처리가 되지 않고 있어 통신사에 환불처리 지연 이유에 대해 문의하고 환불을 요구하니 명확한 답변도 주지 않고 있어 본회에 도움을 요청하였다.

처리 해당 통신사에 문의하니 1월 28일자로 출금된 계좌로 2만원을 환불 처리했다고 하였으나 소비자에게 확인해 보니 2월 23일자 통장정리시까지도 환불 비용이 입금 처리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다. 통신사에 재확인 요청하니 입금 처리가 누락되었다며 3월 1일자로 입금 약속하였고 이후 정상 입금 처리됨을 확인하였다. 〈오성희 / 중앙회 소비자상담실장〉

‘헬스 회원권’ 소비자피해 크게 늘어

– 환불 거절 · 과도한 위약금 등으로 계약 신중해야 –

건강과 미용을 위해 헬스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관련 소비자피해도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헬스장 이용과 관련해 주로 발생하는 피해유형과 보상기준, 피해예방요령 등을 알아보자.

피해 유형 및 보상기준

◈ 직장 이전으로 중도 해지 요구하자 거절

최모 씨는 2009년 11월 사무실로 방문한 영업사원의 권유로 6개월간 헬스장을 이용하기로 계약하고 30만원을 현금으로 지불했다. 두 달 정도 이용하다 직장 이전으로 계약 해지를 요구했으나 계약서상에 환급 불가라는 조항이 있다며 해지를 거절 당했다.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20조)에 ‘1개월 이상 지속되는 계속 거래에 해당되는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기간 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고 규정돼 있다. 또한 현행 ‘소비자 분쟁해결기준’ 의 체육시설업 관련 규정에 의하면 소비자의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하도록 정하고 있다.

◈ 대표자 변경 이유를 들어 환급 거절

김모 씨는 2009년 6월 스포츠센터 1년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60만원을 지불했다. 헬스장을 거의 이용하지 못할 사정이 생겨 9월 중도 계약 해지를 요청하자 스포츠센터측은 상호는 그래도 쓰고 있으나 대표자가 바뀌었다고 하면서 환급을 거절했다.

➡ 영업 양도와 양수로 인해 사업자가 변경되었더라고 양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상호를 사용하고 있다면 상법상의 상호속용규정(제42조 1항)에 따라 양수인에게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 중도 해지 요구하자 정상 요금으로 산정해 계산

윤모 씨는 2009년 4월 1년 헬스장 이용권을 96만원에 계약하고 신용카드 일시불로 결제했다. 8개월 뒤 모친의 건강이 위독해 계약 해지를 통지했다. 업체측에서는 한 달 정상 가격이 12만원으로 1년에 1백44만원인데 96만원으로 할인해 주었지만, 해지요구시 정상요금으로 산정 8개월(8×12만원=96만원) 동안 다녔으므로 환급해 줄 것이 없다고 한다.

➡ 중도 해지시 이용료와 위약금은 총이용금액(실거래가)을 기준으로 하므로 할인 요금을 기준으로 이용료와 위약금을 산정한다.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서는 ‘환급 금액을 거래시 교부된 영수증 등에 적힌 물품 등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고 규정돼 있다. 따라서 당초 계약금액인 96만원을 기준으로 환급액을 산정하여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 개인 트레이닝 비용은 환급 안 된다고 거절

박모 씨는 2009년 5월 초 스포츠센터를 방문해 헬스장 3개월 이용 등록 후 회비 15만원과 개인 트레이닝(PT : Personal Training) 10회 비용 35만원 등 총 50만원을 냈다. 개인 트레이닝을 2회 받았으나 6월 초 몸을 다쳐 병원에 입원했다. 중도 해지를 요구하자 PT 비용은 환급해 줄 수 없다고 거절했다.

➡ 개인별 트레이닝 프로그램 이용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환불 기준도 달라야 한다고 주장한 사업자가 많으나 일반 헬스클럽 이용 계약과 같이 적정한 환불 조치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개인별 트레이닝 서비스는 환불해 주지 않는다’ 는 스포츠센터의 약관 조항을 무효라고 판단하고 지난해 3월 19일 시정 권고 조치를 내렸다.

헬스장 피해 예방 요령

⊙ 장기 계약은 신중하게 하자

헬스 회원권 계약을 하기 전 직장 근무 여건, 자신의 건강 상태, 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하고 단기간 이용해 본 후 자신의 상황에 맞게 기간을 늘려가는 것이 합리적이다.

⊙ 중도 해지 시 위약금 관련 규정을 확인하자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일반적 거래관행에 비추어 과다한 위약금이 규정되어 있다면 계약하지 않는 것이 좋다. 사업자에게 중도 해지 요구 시에는 해지 의사 통보 시점에 대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내용 증명을 우편으로 발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방문판매로 충동적으로 계약을 했거나 원치 않는 계약을 했을 때

14일 이내에 청약 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20만원이 넘는 금액을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했을 때에는 7일 이내에 청약 철회가 가능합니다. 청약철회는 내용 증명 우편을 통보하는 것이 좋으며, 사업자와 신용 카드사에 각각 통보해야 한다.

⊙ 사업자의 일방적인 영업 중단, 폐업 등으로 인한 피해 발생시

거래 금액을 신용카드 할부 결제(20만원 이상,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3회 이상 분할)했다면 신용카드사에 항변권 행사를 통해 남은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자료참조 : 공정거래위원회〉

신종 보이스피싱 극성, 소비자 주의!

최근 정부 정책 및 홍보를 통해 금융기관 사칭, 재녀납치 등의 사기 수업을 이용한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은 줄고는 있지만, 여전히 신종 수법을 이용한 사기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신종 보이스피싱 유형 및 사례를 통해 대응법 및 예방법을 미리 알아두자.

▣ 신종 보이스 피싱 유형 및 사례

■ 휴대폰 소액결제 요구

– B씨는 경창철(사칭)으로부터 우체국 택배가 반송됐다는 연락을 받았다. 경찰은 B씨에게 개인정보를 확인하겠다면서 휴대전화 인증을 요청했고, B씨는 의심 없이 인증번호로 처리 승인을 했다. B씨는 얼마 후 자신의 휴대전화 소액결제로 20만원이 인출된 것을 알게 되었다.

– 포토메일이 도착하였다는 문자 메시지를 받고 메일 수신을 하면 자동 결제되는 경우

■ 메신저 대화를 통해 송금 요청

– 주로 인터넷 사용이 능숙한 20~30대 젊은 층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메신저피싱은 네이트온, MSN 등 의 메신저로 친구나 지인인 척 접근하여 교통사고, 보안카드 분실, 빚을 갚지 못하면 신불자가 된다는 이유로 송금을 요구하는 경우이다.

– 메신저를 통해 직장상사가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며 200만원 송금을 요청하였다. 평소 직장상상의 말투와 유사하여 송금하려다가 전화로 직접 확인하겠다고 하니 대화 도중 나가 버렸다.

■ 이벤트 당첨, 방송 퀴즈 당첨 등으로 상품을 준다며 개인정보 요청

모 방송 프로그램의 퀴즈 문제를 맞히면 MP3, 아이팟 등을 상품으로 주겠다고 속이면서 주민번호, 이름 등의 개인정보를 요구하였고, 초등학생인 피해자는 의심 없이 개인 정보를 알려주었다. 다음날 피해자의 이름을 거론하며 상품 내용을 변경해 달라는 전화가 오자 피해자의 아버지가 상품을 받지 않겠다고 하였고, 사기단은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하며 전화를 끊었다.

■ 해외에서 이메일과 전화 등으로 송금 요청

– 해외에서 거액의 유산 또는 로또가 당첨되었다는 메일을 보낸 후 변호사를 사칭해 변호사 선임비를 요구한 경우

– 해외에 거주하거나 여행 중인 친인척 등의 행선지나 묵고 있는 호텔 등을 상세히 설명하며 송금을 요구한 경우

▣ 보이스피싱 대응법 및 예방법

1. 거래 은행에 지급 정지를 신청하자

현금인출기를 통한 사기의 경우 즉시 은행에 지급 정지 요청을 하고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전화 사기범들은 이체된 자금을 즉시 인출해 가므로 거래은행 직원 또는 거래은행 콜센터에 신속히 지급정지를 요청하여 사기범들이 자금을 인출해가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자금을 송금한 전화 사기범 계좌 은행 콜센터 및 창구를 통해 할 수 있다.

2.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에 등록하자

무심코 전화 사기범들에게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를 알려준 경우에는 즉시 금융감독원 또는 은행을 통하여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등록하여 추가적인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신분증 분실 등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등록하면 전 금융회사가 공유하여 신규예금 계좌개설, 대출 신청, 신용카드 발급 등 금융 거래시 철저한 본인확인을 요구하게 된다.

3. 해당기관, 본인 등에게 반드시 진위여부를 확인하자

공공 ·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현금인출기로 유도할 경우 반드시 해당기관에 진위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메신저를 통한 금전 요청시, 전화로 본인 여부를 꼭 확인하고 입금 받는 통장이 타인 명의일 경우 일단 의심해야 한다.

또한 발신자표시가 되어 있는 휴대전화일 경우 식별번호(001, 002, 005, 006, 008, 00755) 또는 「국제전화입니다」 문구가 표시됐음에도 관공서,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 모두 사기 전화임을 숙지하고 아울러 발신번호 표시가 되지 않는 전화도 의심해야 한다.

4. 가능한 개인정보 노출을 최대한 줄이자

미니홈피, 블로그 등 인터넷 매체에 자신 및 가족의 개인정보(주소 · 전화번호)를 게시해서는 안 되며, 전화를 통해 카드번호 · 계좌번호 · 주민등록번호 등 각종 개인정보를 요구할 경우 절대 알려주지 말아야 한다.

5. 수사기관에 신고하자

대부분의 사기 수법을 미리 알고 있으면 예방할 수 있으므로 전화사기가 의심되면 국민권익위의 110콜센터(☎ 국번 없이 110번)로 전화하여 상담 받는 것이 좋다.

전화사기로 송금했을 경우 즉시 신고접수는 수사기관에서 담당하고 있으므로 경찰서(☎ 국번없이 1379)와 검찰청(☎ 국번없이 1301)을 통해 가능하다. 〈자료참조 : 국민권익위원회〉

에너지 다소비 가전제품, '개별소비세' 부과

가정에서의 에너지절약을 유도하고, 기업들의 에너지절약 제품 생산을 촉진하기 위해 금년 4월 1일부터 대용량 에너지 다소비 품목에 개별소비세를 과세하기로 했다. 가전제품 구입 전 개별소비세가 붙는 가전제품을 미리 체크해 보자.

◆ 가전 4개 품목 대상, 업소 · 산업용은 제외

에어컨, 냉장고, 드럼세탁기, TV 등 4가지 품목에 과세이다. 그러나 해당 품목에 해당된다고 하여 무조건 과세가 되는 것은 아니다. 법령이 정한 소비전력량 이상을 사용하는 제품만 과세될 예정이다. 그러나 식당, 상가 등 업소용 · 산업용으로 사용되는 제품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어 사업자의 세금 부담은 증가하지 않을 것이다. 단, 가정용 에어컨 및 냉장고를 업소용 · 산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세금이 부과된다.

◆ 개별소비세 재원으로 사회복지시설 가전제품 교체

에너지 다소비 품목 과세제도는 금년 4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며 6.5%(교육세 포함) 정도의 세금이 부과된다. 정부는 에너지 다소비품목에 대한 과세로 거두어들인 세금을 전국 사회복지시설의 가전제품을 절전형으로 교체하는 것을 지원할 것이다.

〈자료제공 : 기획재정부〉

에어컨	– 에너지 소비효율등급이 표시되는 전기냉방기 제품 중 월간소비전력량이 370kWh 이상인 것에 과세됨. – 이 경우에도 정격냉방능력이 10kW 이상인 제품은 과세되지 않는다. – 정격냉방능력 10kW이상인 에어컨은 대부분 업소용, 산업용으로 사용되므로 과세대상에서 제외된 것이다.	냉장고	– 에너지 소비효율등급이 표시되는 전기냉장고 제품 중 월간 소비전력량이 40k Wh 이상인 것에 과세되며 용량이 600리터 이하인 제품은 과세되지 않는다. (일반 냉장고는 거의 대부분 과세대상이 아님) – 또한 김치냉장고나 상업용 냉장고, 전기냉동고 등으로 분류되는 것도 과세대상이 아니다.
TV	– 정격소비전력이 300W 이상인 제품에 부과됨. – 이 경우에도 42형(화면대각선의 길이가 107cm) 이하의 중 · 소형 제품은 과세되지 않는다.	세탁기	– 에너지 소비효율등급이 표시되는 전기드럼세탁기 제품 중 1회 세탁 소비전력량이 720Wh 이상만 과세됨. – 현재 판매되고 있는 모델 중 세탁용량 13kg이하 제품 중에는 과세되는 모델은 하나도 없다.

온라인 유통에 떠오르는 '신 소비족(族)'

불황기에도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온라인 유통업계에서는 올해 새롭게 떠오를 소비계층을 대상으로 마케팅전략을 강화하고 있다. 오픈마켓 옥션이 선정한 "2010년 온라인 유통 핵심 소비자 5"를 통해 신(新)소비 트렌드를 알아보자.

◆ 유라이프족

아이폰 등 스마트폰 사용자가 급증하면서 유라이프(U-life : Ubiquitous life)족들을 겨냥한 상품들이 큰 인기를 끌 전망이다. 모바일 기기를 통해 이메일 확인 등의 업무부터 학습, 여가활동까지 모두 해결하려는 유라이프족의 특성상 이어폰, 케이스, 화면보호 필름 등 모바일기기 액세서리가 점점 고급화될 것이다.

◆ 나홀로족

혼자 살지만 양질의 삶을 추구하는 나홀로족(M-Generation : Myself Genera tion)은 저렴하지만 가격 대비 품질이 좋은 틈새 상품군을 인터넷을 통해 구입하면서 삶의 가치를 높이는데 관심이 많다. 소량 판매 식품뿐만 아니라 '패스트 퍼니처' 등 리빙카테고리 전반에 걸쳐 나홀로족을 겨냥한 상품이 늘 것으로 예상된다.

◆ 오팔족

고령화 시대에 신 소비계층으로 떠오른 실버 세대, 오팔족(OPAL : Old Peop le with Active Life)은 '여자의 지갑을 열게 하라' 라는 일본의 한 서적에 처음 등장한 용어로 경제력을 바탕으로 적극적이고 활동적으로 사는 노인들을 지칭한다. 인터넷을 즐기는 오팔족을 위해 실버용품 카테고리 등을 강화하고 있다.

◆ 글로벌 컨슈머

올해 환율안정세와 함께 '외국 사이트에서 육아용품 등을 직접 사는 적극적인 엄마'를 지칭하는 글로벌 컨슈머가 외국 사이트의 세일을 노리거나 카페 커뮤니티를 통해 공동구매하는 글로벌 쇼핑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온라인 쇼핑몰의 완구 카테고리의 경우 외국산 브랜드의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는 추세이다.

◆ 스포슈머

동계올림픽에 이어 남아공 월드컵 등이 개최되는 올해 스포츠 활동에 적극적인 소비자인 '스포슈머(Sport + consumer)의 활약이 두드러질 것으로 전망된다. 벌써부터 남아공 월드컵 공인구 ' 자블라니 '의 구입하려는 소비자가 늘고 있으며 관련 용품들의 인기도 치솟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경기 관람을 위한 대형 디지털 TV와 프로젝터 등의 판매 호조도 예상된다.

요즘 CF

이 세 기 / 소설가 · 언론인

TV광고에 보면 야한 이브닝드레스를 입은 여자가 이른바 '꽃남'으로 불리는 남자에게 숨 막힐 듯이 달려들면서 밑에서부터 위로 온몸을 훑다시피 애무하는 장면이 나온다. 에로영화 광고가 아닌가 했는데 화장품 CF다.

같은 설정이지만 좀 더 세련된 표현도 있다. 한 청년장교가 진홍색 드레스를 입은 여자를 뒤쫓는 장면이다. 땅에 끌리는 여자의 긴 드레스와 청년의 사관학교 유니폼이 특히 인상적이다. 청년장교는 드레스 입은 여자를 쫓은 것이 아니라 그녀의 진홍색 입술에 매혹된 것이다. 그것은 립스틱 광고다.

커피광고를 보자. 두 남녀가 나와서 입술이 닿을 듯 말듯 아찔한 장면을 연출해 보인다. 남녀의 키스신을 커피 향에 대비시킨 이 광고는 처음엔 싱그럽게 느꼈으나 이것이 시리즈로 반복되자 그만 질려버렸다. 앉아서 키스하고 누워서 하고 책으로 가리는 등 시도때도 없이 나누는 키스에 신물이 났고 "또야?" 소리와 함께 채널을 돌리게 만드는 역효과를 낳았다.

소비자의 눈길을 끌려는 선정적인 광고가 과연 얼마만한 효과를 거두는지는 알 수 없다. 다만 전에는 청바지와 화장품에 한하던 것이 이제는 맥주, 피자, 치킨에서 피로회복제와 돈을 빌려주는 대부광고에까지 폭넓게 퍼져있다.

예를 들어 찌개를 끓이던 아내가 남편이 귀가해서 부엌으로 들어서자 두 다리를 벌리고 허리까지 뛰어오른다. 남편이 일찍 귀가한 것이 저토록 감격할 일인가? 남편어깨에 기댄 여자의 얼굴이 한심해 보였고 무슨 광고인지는 몰라도 그 상품은 사고 싶지 않았다. 이와 비슷하게 회사에서 돌아온 남편에게 달려가서 다짜고짜 얼굴에 키스를 퍼붓는 장면도 있다. 상품이나 광고카피는 생각나지 않고 여자의 생뚱맞은 웃음소리만 귓가에 남는 예이다.

또 남녀가 길을 가다가 남자가 여자에게 "나 피곤해서 그러는데 조금 쉬었다 가자"고 들이대는 대목도 있다. 이 광고는 성인들의 세계를 너무 적나라하게 표현했다고 해서 빈축을 샀다. 시청자들은 가족들이 모인 시간대에 광고문안 등 대사를 선별하지 않고 무작정 내보낸 TV당사의 무신경에 더 화를 냈다.

더구나 이들 광고에 청소년들의 우상인 아이돌스타들이 동원되는 것도 문제다. "노바디노바디벗츄?((nobody but you)" "지지지" 등 긴 머리 소녀들이 일렬횡대로 늘어서서 각선미를 뽐내며 노래를 부를 때는 그런대로 프레시한 감이 있었다. 그러나 걸핏하면 초콜릿 복근을 드러내고 닭다리 하나를 선전하기 위해 너도나도 기를 쓰고 엉덩이를 흔드는 것을 보면 청신감은커녕 역겨움이 울컥거린다. 이 역시 TV가 만들어낸 산물의 하나다.

TV 오락프로그램에서 MC들은 한결같이 신인들에게 댄스배틀을 시키고 가슴과 엉덩이를 잘 흔들고 상대방을 잘 유혹하는 것이 탁월한 예능감이 있는 것처럼 박수를 쳐대며 부추긴다. 이렇게 훈련된 아이돌들이 TV 프로에 나와서 저마다 엉덩이를 흔들고 뮤직비디오와 상품 선전 광고에서 에로티시즘의 한 경향을 세워나가는 것이다. 이는 나이어린 아동들에게 영향을 미친다.

부모를 동반한 가족 프로그램에서 MC들은 겨우 5, 6살 된 유치원 아이들에게 여자 친구나 남자친구가 있느냐고 묻고 "뽀뽀해!", 아니면 하트를 날려보라고 주문한다. 심지어 한 MC는 고교생에게 "여자 친구가 초등학생이라도 키스하느냐?"고 묻는 것을 보았다. 이쯤 되면 TV의 횡포가 어디까지인지? 그것이 청소년들이 보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사회자의 덕목인지 한번쯤 돌아볼 일이다.

그게 어떠냐? 애정표현은 인간의 본능인데 왜 전근대적인 사고방식으로 저울질하느냐고 반박한다면 당신 자녀도 그런 식으로 교육시키느냐고 되묻고 싶고 시청자는 연예인들의 다양한 탤런트와 온가족이 함께 볼 수 있는 건강한 프로그램을 즐길 권리가 있다고 말하고 싶다.

새봄과 함께 대학문을 나선 청년실업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한가하게 에로티시즘이라는 자극에만 집착하지 말고 우리만의 정서와 기질을 나타내는 소박하고 꾸밈없는 창의력을 보여줄 때다.

한때 외환위기 이후 절망에 빠졌던 아빠들에게 힘을 주었던 "아빠 힘내세요"나 생계를 위해 개미쳇바퀴 돌듯 직장에 얽매인 직장인들에게 과감하게 여행을 떠나라고 외친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미치도록 즐거워!"는 얼마나 신나는 메시지인가?

어느 나라에나 성적인 광고는 있다. 또 선정적인 광고가 다 나쁘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CF는 상품의 정보뿐 아니라 그 시대의 유행과 풍속, 세태와 인심이 새롭게 반영되지 않으면 광고로서의 의미가 없어진다.

아무리 보아도 질리지 않고 고단한 일상에 희망과 생기를 주는 광고, 모든 연령층이 언제 어디서나 마음 놓고 볼 수 있는 CF가 우리사회를 아름답게 성숙시킨다. 그것이 CF만의 위력이다. ■

조선일보신춘문예 소설당선, 현대문학소설추천, 서울신문논설위원, 영상자료원 이사, 영상물등급위 위원, 저서: 창작집 『바람과 놀며』, 『그다음은 침묵』, 이화여대총장 『김옥길평전』, 『명무 강선영평전』, 한국예술가 100인 『빛을가꾸는 에피큐리언』, 『예술을뚫고 들어간 사람들』, 『한국 YWCA 80년사』 등 다수, 현재 차범석연극재단 이사, 영상물등급위 영화예심.

황사에 좋은 웰빙 식품

봄철 불청객인 황사가 시작되면서 호흡기 질환 등으로 고생하는 사람이 증가하고 있다. 철저한 개인위생 습관과 함께 황사에 좋은 음식을 함께 섭취하면 황사로부터 건강을 지킬 수 있다. 황사음식의 대명사인 돼지고기의 지방성분 때문에 자주 섭취하기가 망설여진다면 다음의 '웰빙 식품'으로 황사를 이겨내자.

◈ 미역

'알긴산' 이라는 물질이 많이 들어있는 미역은 중금속 배출 효과가 뛰어나다. 알긴산은 질 좋은 수용성 섬유질로 미역 성분의 20~30%를 차지하며 끈끈한 성질이 있다. 스펀지처럼 물을 흡수하듯 중금속과 농약, 환경호르몬, 발암물질 등을 흡착시켜 배설함으로써 중금속에 의한 피해를 줄일 수 있다.

◈ 미나리

미나리에 있는 식이섬유는 유해물질을 해독시켜준다. 동의보감에 따르면 미나리는 "가슴이 답답하고 열이 날 때 목이 마르는 증상을 그치게 한다"고 나와 있듯이 미나리는 해열, 해독, 혈압을 내리는 데 민간약으로 사용되던 채소로 가래를 가라앉히는 기능이 있어 황사, 매연, 먼지로 칼칼해진 목과 폐, 기관지를 보호하는데 효과적이다. 미나리는 흐르는 물에 잘 씻어 생즙을 내서 마시거나 차로 끓여 마시면 효과를 볼 수 있다.

◈ 냉이

봄철 대표 나물인 냉이도 황사에 효과적이다. 냉이는 비위(脾胃)를 이롭게 하고 이뇨작용을 원활하게 하며 눈을 맑게 하여 황사와 봄철 건조한 날씨로 눈이 피로하거나 건조할 때에 좋다. 또한 냉이는 채소 가운데 단백질이 가장 풍부하며 비타민A와 C, 칼슘, 인, 철분도 많이 들어 있는 알칼리성 식품이다.

◈ 도라지

한약 처방에서 자주 사용되는 도라지는 호흡기 질환 등으로 생긴 가래를 기관지 밖으로 쉽게 배출되도록 도와준다. 기침을 치료하며 폐의 기능을 회복시키는 기능도 뛰어나 황사에 안성맞춤인 약재이다. 도라지의 쓴맛을 내는 사포닌 성분은 결핵을 비롯한 여러 호흡기 질환에서 담을 제거하고 고름을 빠지게 하는 작용도 한다.

◈ 녹두

녹두는 독성 노폐물을 녹여 배설시켜주는 성분이 있어 해독작용을 해주는 대표 음식이다. 봄철 황사나 꽃가루 등 인해 거칠어지고 지친 피부에 녹두 팩이 효과적이다. 황사 때 피부에 낀 미세먼지를 제거해주고 피부에 열을 내려줘 활력을 찾아준다. 또한 녹두는 황사음식의 대명사로 알려진 돼지고기를 넣어 녹두전을 해서 먹으면 찰떡궁합이다.

◈ 명태

숙취에 효과가 좋은 명태도 황사에 좋은 효과를 갖고 있는 식품이다. 몸 안에 축척된 여러 가지 독성을 제거하여 소변을 잘 보게 하는 효과가 있다. 명태의 주요 성분은 단백질이며 칼슘 또한 풍부하며, 지방이 적어 맛이 담백하다. 명태를 말린 황태는 단백질 양이 2배로 늘어나 전체 성분에서 단백질이 50%를 차지하는 고단백질 식품으로 콜레스테롤이 거의 없어서 육류보다 고급 단백질을 가지고 있다. 봄철 황사와 꽃가루로 고생하는 알레르기 환자에서 효과가 있다.

◈ 양파와 마늘

양파는 비타민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영양이 높고 매운맛이 별로 없는데다 몸속에 쌓인 수은 등 중금속을 배출시켜 황사나 먼지 등으로부터 건강을 지키는 효과가 뛰어나다. 마늘 역시 수은의 체외 배출 효과가 탁월한 식품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양파와 마늘 속에 들어있는 황 성분은 체내에 쌓여있는 수은 등의 중금속과 결합하여 변으로 배설시키는 작용을 한다.
황사의 미세 먼지 속에는 수은이 포함되어 있는데 수은이 몸속에 쌓이면 만성 피로와 어지러움, 고혈압 등의 증상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하니 꼭 섭취해야 한다.

◈ 홍삼

면역력 증가 식품으로 인기를 얻고 있는 홍삼은 노폐물 제거에도 효과적이다.
인삼류가 중금속을 해독하는 데에 효능이 입증된 바 있어 황사 해독에 좋고, 특히 홍삼은 면역력 강화 및 기력회복 등의 기능이 있어 환절기 체력 보강에도 좋다. 티백제품의 홍삼차를 즐겨 먹는 것도 쉽게 홍삼을 섭취 할 수 있는 방법이다. 〈내용출처 : 농촌진흥청〉

원자력의 역사

지난해 말 우리나라가 아랍에미리트에서(UAE) 원자력발전소 건설 사업을 수주하면서 원자력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더욱이 원자력이 생활 속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어 이번 호에서는 원자력이 언제부터 어떻게 이용하게 되었는지 알아보자.

◈ 원자력의 시작

19세기에 들어와서 뢴트겐의 X선 발견, 베크렐의 방사선 발견, 톰슨의 전자 발견 등 물질의 구조에 과한 과학적 지식이 축적되고, 특히 아인슈타인의 '질량에너지 등가법칙'(E=mc2) 등으로 미시적 세계에 대한 해석이 가능해졌습니다. 이어 체드윅의 중성자 발견으로 중성자와 원자핵의 상호작용 즉, 핵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짐으로써 원자력 관련 기술 개발이 급속도로 진전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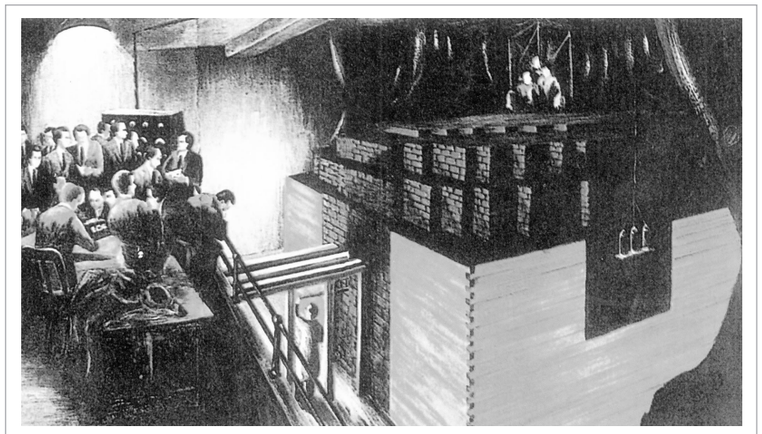
X-선으로 처음 촬영한 손 (뢴트겐의 부인) 사진

1942년 미국의 물리학자 엔리코 페르미가 설계한 CP-1이라는 원자로에서 세계 최초로 우라늄 핵분열 연쇄반응 실험이 성공하면서 인류 역사의 새로운 원자력 시대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과학자들의 의지와는 다르게 원자력은 세계 2차 대전 때 일본나가사키와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자폭탄으로 먼저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1953년 미국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제안이 나오고, 이어 1957년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창설되어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이 본격화 되었습니다.

1954년에는 세계 최초로 구소련의 오브닌스크의 원자력발전소가 가동되고, 1956년 영국의 콜더홀 원자력발전소가 상업운전을 시작하면서 원자력발전 시대를 열게 됩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31개국에서 436기의 원자력발전소가 운영 중에 있으며, 전체 발전량의 15%를 원자력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온실가스 감축 및 석유의존도 완화 등을 위해 원자력발전의 역할이 부각되며 2030년까지 430기의 원자력발전소가 추가 건설될 예정입니다.



최초의 원자로인 CP-1의 실험모습 상상도

◈ 우리나라의 원자력 역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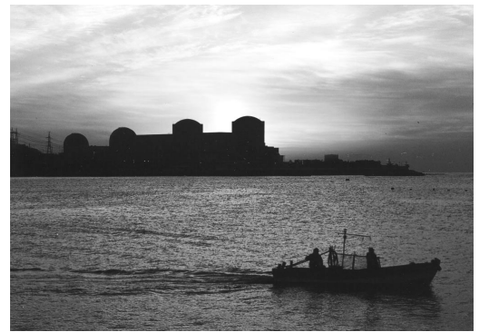
우리나라는 1955년 제네바에서 열린 원자력평화회의 참석을 시작으로 1959년 연구용 원자로 트리가마크-Ⅱ(TRIGAMark-Ⅱ)를 도입하면서 원자력 개발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1970년대에 들어 세계적인 석유파동으로 대체에너지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1971년 3월 우리나라 최초의 원자력발전소인 고리원전 1호기(부산광역시 기장군 소재)가 착공되어 1978년 4월 29일 역사적인 상업운전을 시작, 세계에서 21번째 원자력 발전 보유국이 되면서 우리나라 원자력발전 시대를 열게 되었습니다.

이후 계속 월성, 영광, 울진에 발전소를 건설, 현재 총20기의 원자력발전소를 보유한 세계 6위의 원자력발전 선진국이 되었으며, 특히 울진 3, 4호기를 통해 한국표준형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하여 준국산 에너지로서의 위상을 갖게 되었고 이후 지속적인 기술개발을 통해 OPR-1000, APR-1400 등의 신형 원자로를 개발하여 2009년 12월에는 아랍에미리트에 신형 원자력발전소 4기를 수출하여 세계 6번째 원자력발전소 수출국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80기의 원전을 수출, 미국, 프랑스 등과 함께 세계 3대 원전 강국으로 도약할 계획입니다.

〈글 : 주부교실 편집자 주, 자료제공 : 한국원자력문화재단〉



고리 원자력발전소 일출 전경

이달의 읽을 만한 책

쓸쓸해서 머나먼

(최승자 저 / 문학과지성사)

『이 시대의 사랑』,『즐거운 일기』의 시인 최승자가 11년 만에 『쓸쓸해서 머나먼』을 출간했다. 최승자라는 이름 자체가 뜨거움과 새로움의 상징이었던 때로부터 세월은 무수하게 흘렀다. 최승자의 시로 상징되는 '시'란 이런 것이다라는 룰이 거침없이 깨져 나가는 통쾌함, 억압된 모든 현실들을 격렬한 자기 부정과 자기혐오의 독백으로 이어지던 파멸의 언어들을 기억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쓸쓸해서 머나먼'은 적요한 밥상 앞에 앉아 있는 듯 한 느낌을 주는 시집이다. 비명에 가까운 모멸이 사라진 자리에 깃든 쓸쓸한 평화가 이 시집이 지니고 있는 생기이다.

말하지 않아도 없는 것은 아니다./ 나무들 사이에 풀이 있듯 / 숲 사이에 오솔길이 있듯 // 중요한 것은 삶이었다. / 죽음이 아니었다. / 중요한 것은 그 거꾸로도 참이었다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中에서-

아름답게 번득였고 남김없이 부서졌기 때문에 이 시집의 시들 속에 찾아온 작은 평화들은 깊고도 찬란하다. 11년 동안 병상생활을 하는 와중에 시인이 한걸음씩 찾아낸 이 아득하고 먼 세계. 회복기 환자가 매끼 지어 먹는 것 같은 흰죽 같은 시편들이 쓰러지려는 마음들을 위로한다. 혹한의 겨울이 지나고 봄빛이 가만가만히 찾아오는 3월 같은 시집이다. 〈추천자: 신경숙(작가)〉

세상을 움직이는 100가지 법칙

(이영직 저 / 스마트비즈니스)

세상을 살다보면 모호한 경우가 많다. 어떤 현상을 움직이는 원리, 사람의 행동이나 심리를 좌우하는 법칙이 있는 것 같은 데, 희미한 그림자만 보일 뿐 머리 속에 명확히 잡히지 않는 것이다. 개념과 실체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때 그 모호함의 정체를 알게 해 주는 책이 바로 『세상을 움직이는 100가지 법칙』이다. 삶의 현장에서 맞닥뜨리는 여러 법칙이 어떻게 발견되고 발전하였는지, 또 세상을 관통하는 법칙이 현실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설명했다. 기술방식은 동서양에서 삶의 지혜로 회자되는 수많은 법칙을 100가지에 압축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인터넷에서 여론의 동향을 설명해 주는 것이 이 책에서 말하는 '밴드 왜건 효과'이다. 사람들은 수레를 따라 울리는 밴드 음악 소리와 군중의 행렬을 보고 쉽게 수레 뒤를 따르게 된다는 내용이다. 깨진 유리창의 법칙도 그렇다. 한번 포기한 것처럼 보이면 사람들이 다른 것에 비해 쉽게 버린다는 내용이다. 이밖에 '하인리히 법칙', '죄수의 딜레마', '파레토 법칙', '플라세보 효과', '희생양 이론' 등 대중매체에서 자주 접하면서도 그 내용이 정확하게 잡히지 않은 개념을 쉽게 설명해준다. 우리의 지식을 풍부하게 만들고, 또 상식을 더욱 공고할 뿐 아니라 교양의 지평을 넓히는 데 도움을 주는 실용서로 추천한다. 책을 읽고 나면 지식의 키가 한 뼘 정도 커져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추천자 : 손수호(국민일보 논설위원)〉

전국 16개 시·도 지부 232개 시·군·구 지회

부산광역시지부

총회 및 농산물 명예감시원 교육

시지부(회장 김기묘)에서는 지난 2월 19일 시지부 강의실에서 지회장과 운영위원 80여명이 모인 가운데 〈2010년 정기총회〉를 개최해 09년도 사업실적 및 예산결산서 심의와 함께 2010년도 사업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 19일에는 강의실에서 농산물 명예감시원으로 활동할 회원 93명 대상으로 농산물 · 음식점 원산지 계도 및 감시활동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농산물 원산지표시 캠페인

2월 22일 회원 25명이 영주시장 일대에서 "농산물 원산지 표시, 음식점 원산지표시 우리 모두가 지켜야 할 약속입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관련 홍보 리플렛을 배포하며 가두 캠페인을 전개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했다.

인천광역시지부

설 물가조사

시지부(회장 한혜자)에서는 지난 2월 1일~2일 이틀 동안 회원 15명이 인천지역 내 재래시장, 백화점, 대형할인마트 등 30곳에서 설을 앞두고 가격 상승이 예상되는 농 · 수 · 축산물 등 주요 성수품의 가격을 조사해 소비자에게 올바른 가격 정보를 제공하고, 물가 동향을 파악해 물가 안정 대책 마련에 도움이 되고자 했다.

봉사활동

계양구지회(회장 고영숙) 회원 6명은 지난 2월 2일 신종플루 예방접종을 시행하고 있는 계양구 보건소를 방문해 접종 진행 도우미 활동, 회원 7명은 매주 목요일 인근 동 사무소에서 민원 상담 도우미 활동을 전개했다.

11일에는 회원 12명이 계양구청 광장에서 열린 "계양사랑 나눔장터"에서 가래떡을 판매해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마련했고, 18일에는 회원 12명이 병방사거리에서 기초질서 지키기 계도 및 도로에 쌓인 눈 치우기 등 교통정리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남구지회(회장 이은자) 회원 2명이 노인복지회관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위안잔치인 〈해오름잔치〉에 참석해 음식대접 등 봉사활동을 전개했고, **부평구지회(회장 이순애)** 회원 10명은 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상담 등 도우미 자원봉사 활동을 실시했다.

대구광역시지부

정기총회

시지부(회장 손기순)는 지난 2월 9일과 19일 시지부 강의실에서 각각 이사회와 운영위원회를 개최했고, 26일에는 진석타워 로즈마리홀에서 지회장 및 임원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6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봉사활동

시지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등산반 회원 22명이 지난 2월 10일 통영 무인산으로 산행을 떠나 결속강화와 함께 주변 쓰레기 줍기 등 자연정화 활동을 전개했고, 회원 29명은 23일 화성양노원을 방문해 식사대접 및 40만원 상당의 생필품을 구입해 전달하고 쓸쓸한 노년을 보내고 계시는 노인들을 위로하며 말벗이 되어 드렸다.

광주광역시지부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

시지부(회장 박영희)는 지난 1월 29일~2월 2일 5일동안 12명씩 한 조가 되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직원들과 함께 광주 대인시장, 남광주시장, 말바우시장에서 각각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을 전개해 소비자, 농식품 판매자, 음식점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농식품의 원산지표시 요령 등 관련 홍보 전단지를 배포하며 부정유통방지에 앞장섰다.

월례회 및 주부대학 수료식

2월 4일 강남회관에서 운영위원 등 임원 22명이 참석한 가운데 월례회의를 개최했고, 25일 신양파크호텔 1층 에메랄드 홀에서 주부들의 평생교육을 위해 운영했던 "제27기 주부대학 수료식"을 개최해 115명의 수료생들에게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여성리더로서의 역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며 가족들과 함께 축하와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대전광역시지부

2010년 주부교실 정기총회

시지부(회장 송병희)에서는 지난 2월 10일 주부교실 2층 회의실에서 시지부 임원 및 지회 임원 분회장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0년 주부교실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지난해 사업 보고 및 평가, 올 사업계획 등을 보고한 후 분회장으로부터 각 분회의 운영에 대한 보고를 듣는 한편, 시지부의 운영 방향과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 등을 통해 분회와 시지부 간 다양한 의견 교류를 통해 주부교실 발전을 모색해 보았다.

울산광역시지부

자전거타기 활성화 캠페인

시지부(회장 박보봉)에서는 지난 2월 3일 회원 50명이 자전거를 타고 동천체육관을 시작으로 홈플러스, 경찰청 주변에서 자전거타기 활성화 홍보 캠페인을 전개했다.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자전거 이용 인구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발맞춰 자전거타기 생활화로 에너지절약 및 환경 보호에 앞장섰다.

무료 한글 · 수학 교실 등 문화교실 운영

매주 월, 수요일 시지부 문화교실에서 형편이 어려워 공부를 하지 못한 어르신 40명을 대상으로 무료 한글 · 수학교실을 운영으로 배움의 기회 제공으로 행복한 노후생활에 도움을 드리고자 했다.

또한 자전거 이용 인구 저변확대를 위해 월요일~금요일 동천체육관에서 회원 10명을 대상으로 오전, 오후반으로 자전거 이론 및 실기교육을 병행하는 그린여성자전거교실을 운영해 주부들의 여가선용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녹색사회 조성에 동참했다.

봉사활동

지난 2월 11일 회원 12명이 남구복지관을 방문해 설 명절을 앞두고 가족 없이 쓸쓸히 홀로 지낼 노인들에게 정성껏 끓인 떡국을 대접하며 위로했다.

물 보전을 위한 여성의 역할 교육

2월 18일 주부교실 교육장에서 회원 200여명을 대상으로 물 사랑 교육을 실시했다. 참사랑요양센터장 등 물 관련 전문 강사를 초빙해 물 자원의 소중함 및 보존 방법 등을 소개하며 물 보전을 위한 여성의 역할 강조 및 물사랑 · 물절약 의식제고에 힘썼다.

역사체험학습

남구지회(회장 한주희)에서는 지난 2월 16일~27일 1박2일로 역사체험학습 기회를 가졌다. 역사체험 전문가와 함께 회원 40명이 강화도를 시작으로 민속박물관, 경복궁 등 서울의 고궁문화를 찾아다니며 당대의 역사와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

경기도지부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 및 실태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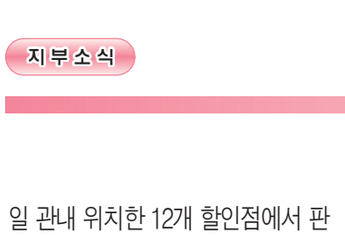
시지부(회장 박명자)에서는 2월 8일 도지부와 수원시지회 농산물 명예감시원 38명이 수원화성시장에서 설 명절을 맞이해 농식품의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을 전개해 부정유통방지에 앞장섰다. 또한 17일~24일 명예감시원 4명이 도내 전문장례식장 5곳과 병원 5곳을 대상으로 농산물 원산지표시 여부 및 표시내용 등 원산지표시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사업 및 명예감시원 활동

광명시지회(회장 장대숙) 회원 13명은 매월 첫째, 셋째, 다섯째 수요

일 관내 위치한 12개 할인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59개 주요생필품을 대상으로 소비자가격 및 유통업체 물가조사를 실시했고 둘째, 넷째 수요일에는 물가조사요원 10명이 전 지역을 대상으로 가격파괴 서비스업 및 개인서비스요금 동향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남양주시지회(회장 박순자) 명예감시원 4명과 담당 공무원 2명이 함께 지난 2월 8일~10일까지 관내 위치한 대형마트 내 정육코너 및 정육점을 대상으로 축산물 원산지표시 감시 및 허위표시 단속활동을 전개했다.



재래시장 활성화 캠페인

오산시지회(회장 김형례) 회원 30명은 2월 4일~11일까지 관내 대형마트와 재래시장 등에서 설 성수품 물가조사를 실시했고, 8일에는 회원 10명과 담당 공무원 2명, 중소기업청 관계자 등이 오산전통시장에 모여 온누리 상품권 이용 등 재래시장 활성화 홍보 캠페인을 전개했다. 한편, 17일에는 주부교실 사무실에서 회원 15명을 대상으로 농산물명예감시원 교육을 실시해 쇠고기 이력제 및 양곡표시제 등을 소개했다.

물가안정 캠페인 및 봉사활동

과천시지회(회장 양명희)는 2월 8일~11일까지 물가모니터14명이 지역내 대형할인마트, 재래시장 등에서 설 성수품 물가조사를 실시했고, 11일에는 회원 13명과 과천시장, 공무원 등이 새서울프라자, 제일쇼핑 등 별양동 중심상가에서 물가안정 홍보 전단지를 배포하면서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했다. 한편, 17일 회원 5명이 구세군 실비요양원을 방문해 목욕봉사 활동을 전개했다.

구리시지회(회장 정순) 회원 10명은 지난 2월 3일 토평 사회복지관을 방문해 무료급식 반찬 만들기 자원봉사활동를 실시했고, 4일 구리재래시장에서 물가안정 및 재래시장 활성화 캠페인을 전개했다.

고양시지회(회장 박희자)는 지난 2월 9일 일산동구 정발산 역사 내에서 설을 맞이해 과소비를 예방하고 합리적인 소비문화를 유도하기 위해 물가안정 캠페인을 전개했고, 10일에는 원당재래시장에서 강현석 고양시장과 시의원 등과 함께 성수품 물가 현장점검 등을 실시해 물가안정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부탁했다.

성남시지회(회장 강용선) 회원 12명은 2월 16일 중원구 상대원1동 복지관을 방문해 중식배식 도우미, 설거지, 청소 봉사활동을 전개했다.

수원시지회(회장 권순자)는 2월 8일 회원 및 관계공무원 70여명이 함께 영동 · 지동 시장에서 설 맞이 물가안정 및 재래시장 활성화 캠페인을 실시했다.

안양시지회(회장 장도희) 회원 11명은 2월 1일 안양시 호계노인복지관을, 9일에는 동안 노인복지관을 각각 방문해 중식제공 도우미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11일에는 아나바다 매장 수익금으로 불우이웃 75가정에게 성금 및 필요한 생필품을 구입해 전달했다.

파주시지회(회장 김순자) 회원 10명은 지난 2월 19일 노인복지회관을 방문해 중식배식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평택시지회(회장 정희주) 회원 25명도 2월 5일 평택시 노인복지관을 방문해 기초생활보호대상자 및 저소득가정 등 생활이 어려운 노인 400여분을 위한 중식제공 봉사활동을, 5일에는 회원 3명이 차상위가정 12가구에게 쌀과 생필품을 전달하며 이웃사랑을 실천했다. 25일에는 평택시 부락종합사회복지관에서 가정 형편이 어려운 청소년 30명에게 교복을 구입해 전달하며 위로 격려했다.

여주군지회(회장 권순자) 회원들은 2월 9일 봉황 웨딩홀에서 열린 아이티난민돕기 행사에 참여해 다도 예절 및 차 대접 봉사활동을 전개했다.

강원도지부

봉사활동

태백시지회(회장 오영희) 회원 8명은 지난 2월 2일 노인전문요양원을, 4일과 18일에는 장애인복지관을 각각 방문해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한 목욕 봉사활동을 전개했다. 5일에는 회원 5명이 상장동 일원에서 설맞이 동 대청소에 참여했고, 11일에는 회원 2명이 화전동에 거주하는 재가노인 2분을 위한 미용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충청북도지부

'2010년도 충북도지부 신년회' 개최

도지부(회장 최광옥)에서는 지난 2월 18일 도지부 사무실에서 임원 및 회원들 20여명이 한 자리에 모여 "2010년도 충북도지부 신년회"를 개최했고, 설맞이 기념 윷놀이 게임과 함께 떡국을 함께 먹으로 서로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며 결속과 화합을 다졌다.

여성단체협의회 회장 이 · 취임식

청주시지회(회장 권지순) 회장이 제11대 청주시여성단체협의회 회장으로 선출돼 지난 2월 24일 청주시청 대강당에서 "청주시여성단체협의회회장 이 · 취임식"을 갖고, 2년 동안 여성발전과 함께 지역발전을 이끌어 나가기로 했다.

봉사활동

괴산군지회(회장 전해옥) 회원 7명은 2월 4일 문화체육센터에서 열

리고 있는 전국 실내양궁대회에 참석해 음료제공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5일에는 회원 6명이 청천재활원을 방문해 밑반찬 제공 및 청소 봉사활동을 전개했다.

단양군지회(회장 김길성) 회원 5명은 도우미가 없는 주말마다 불편하게 생활하고 계시는 영세민 노인 보호시설을 방문해 식사 및 청소 봉사 활동을 실시했다.

음성군지회(회장 김영옥) 회원 5명이 읍성읍 사정리 마을 회관에서 군내 거주하고 계시는 노인 40분의 건강을 지켜드리고자 치매예방 진단 설문조사를 실시한 후 음성군 정신보건센타에 관련 조사 자료와 함께 건강진단을 의뢰하였다.

충청남도지부

농산물 원산지 정착을 위한 캠페인

도지부(회장 조춘자) 16개 시 · 군지회의 농산물명예감시원으로 활동하고 회원 160여명이 인근 재래시장에서 각각 농산물 원산지표시 정착을 위한 홍보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지난 2월 9일에 도지부 명예감시원 10여명이 인근 재래시장에서 상인들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의 필요성 및 요령 등을 홍보하는 캠페인을 전개해 농산물 부정유통 방지에 앞장섰다.

봉사활동

지난 2월 12일 도지부 회원 20명이 공주시 여성단체협의회를 방문해 부자가정을 위한 밑반찬 전달 행사에 동참해 이웃사랑을 실천했다.

물가안정을 위한 캠페인

서산시지회(회장 이영옥) 회원 20명은 동문동 상사 앞에서 연초 물가안정을 위한 캠페인을 전개해 관련 홍보 전단지를 배포하면서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했다.

전라북도지부

에너지절약교육

도지부(회장 최원자)에서는 겨울철 에너지절약 생활화 실천에 도움을 주고자 지난 2월 2일 하나대투증권강당에서 운영위원 40명을 대상으로 "고효율제품 구매촉진과 CO_2 절감을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

시 · 군지회 회장단 연수회

2월 9일 하나대투증권강당에서 14개 시 · 군지회 회장과 도지부 임원 등 30명이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 "시 · 군지회 회장단 연수회"를 개최해 2010년도 상반기 사업보고를 시작으로 지회간 협조사항 등을 부탁하며 주부교실 발전을 도모했다.

불우이웃돕기 및 봉사활동

군산시지회(회장 박희순)에서는 2월 11일 설 명절을 앞두고 군내 거주하고 있는 불우이웃 4세대에게 성금을 각각 전달하며 위로 격려했다. 또한 2월 19일 시지부 사무실에서 회원 30명을 대상으로 공정거래위원회 강사를 초빙해 소비자 교육을 실시했다.

김제시지회(회장 김보배) 회원 10명은 2월 5일 노인요양원인 '평강의 집'을 방문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위한 목욕 봉사활동을 전개했다.

익산시지회(회장 김채숙)에서는 2월 8일 군내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 2명과 불우이웃 1세대에게 성금을 전달하며 위로 격려했다.

정읍시지회(회장 김순자)에서는 지난 2월 6일 관내 거주하고 있는 불우이웃 6세대에게 쌀과 라면을 전달하며 이웃사랑을 실천했다.

무주군지회(회장 김용순)는 2월 8일 군내 거주하고 있는 불우이웃 2세대에게 생필품을 전달했다.

부안군지회(회장 김용순)는 2월 3일 관내 거주하고 있는 독거노인 5명에게 성금을 전달하며 쓸쓸한 노년의 삶을 위로해 드렸고, 같은 날 초등학교 졸업식이 열린 부안초등학교와 부안동초등학교를 각각 방문해 졸업생들을 축하하며 형편이 어려운 가운데 중학교에 입학한 학생 1명씩을 선정해 도서상품권을 전달하며 위로 격려했다.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

고창군지회(회장 전옥선)에서는 지난 2월 3일 농산물명예감시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회원들이 고창군 농검출장소에서 농산물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을 전개해 농산물 부정유통 방지에 앞장섰다.

전라남도지부

시 · 군지회 임원 간담회

도지부(회장 이송자)에서는 지난 1월 8일부터 목표시지회를 시작으로 22개 시 · 군지회 순회 간담회를 실시하고 있다. 2월 3일은 화순군지회, 8일 광양시지회를 방문해 시지부의 상반기 사업보고 등 도지부와 시 · 군지회간 업무 협조 사항 등에 대해 논의하며 주부교실의 발전적 방향을 모색했다.

물가조사 및 환경 서포터즈 실천운동

순천시지회(회장 신애란) 회원 10명은 지난 2월 1일~2일 대형할인매장 4곳, 일반슈퍼 및 재래시장 6곳 총 10곳에서 성수품을 중심으로 가격조사를 실시해 물가동향을 파악해 소비자 물가안정을 도모하고자 했다. 회원 51명은 "2013 순천만 보석캐내기 여성서포터즈 실천운동" 발대식 이후 지난 2월 23일 관련 홍보 서포터즈 가방을 메고 순천만까지 환경정화 활동을 실시해 환경 서포터즈 실천운동에 앞장섰다.

봉사활동

여수시지회(회장 이안자)에서는 지난 2월 12일 충무동 교회에서 GS칼텍스 노인사회사업에 참여하신 어르신들 25분에게 음식을 대접했고, 18일 미평동 경로당, 19일 여서동 주공 5단지, 20일 소라복지관을 각각 방문해 생일을 맞은 어르신들의 생신 잔치를 마련해 음식을 대접하며 쓸쓸한 노년의 삶을 위로해 드렸다.

고흥군지회(회장 박민자) 회원 21명은 2월 9일과 24일 포도믿음의 집

을 방문해 청소 봉사활동을 실시하며 어르신들의 말벗이 되어 드렸고, 17일~19일 회원 45명이 고흥생활체육공원에서 열리고 있는 동계축구대회에 참여해 무료 음료제공 및 행사 진행 도우미 봉사활동을 전개했다.

우리 농산물 애용 캠페인

영광군지회(회장 정찬자) 회원 34명은 2월 8일 영광터미널 일대에서 원산지표시제도 및 우리 농산물 식별 요령 등을 홍보하며 우리 농산물 애용 및 재래시장 활성화 캠페인을 전개했다.

경상북도지부

봉사활동 및 불우이웃돕기

경산시지회(회장 우옥순) 회원 11명은 2월 22일 백천노인복지회관 무료급식소를 방문해 배식 및 설거지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경주시지회(회장 박추자) 회원 25명은 2월 9일 안강읍내 거주하고 계시는 독거노인 등 불우이웃 40가정에게 떡국을 만들어 대접했고, 18일 안강초등학교에서 열린 졸업식에 참석해 장학금을 전달했다.

문경시지회(회장 이명순)에서는 지난 2월 18일 문경초등학교 졸업식에 참석해 졸업생 2명에게 장학금을 각각 전달하며 격려했고, 23일에는 문경읍 교촌리에 사시는 독거노인 할머니댁에 연탄 300장을 전달해 이웃사랑을 실천했다.

영주시지회(회장 김시영) 회원 7명은 2월 17일 독거노인이 거주하고 계시는 하망성당 만남의 집을 방문해 중식제공 봉사활동 및 음료를 대접하며 쓸쓸한 노년의 삶을 위로했다.

포항시지회(회장 김귀련)에서는 2월 1일 북구 학산동 영세민 주공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200가구에 떡국을 만들어 대접하며 학산복지관에 성금을 전했다. 매주 월요일 회원 35명은 아파트 거주 장애인, 거동이 불편한 노인세대 22가구와 독거노인 2가구에 식사배달 및 배식 후 세척봉사활동을 실시했으며 17일에는 회원 15명이 노인요양원인 햇빛마을 '요셉의 집'을 방문해 다과를 대접하며 치매예방법 등을 소개하며 노년의 쓸쓸함을 위로해 드렸다.

고령군지회(회장 양혜숙) 회원 5명은 우곡면 들꽃마을을 방문해 말벗이 되어 드리며 목욕 및 청소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봉화군지회(회장 이유정) 회원 3명은 봉화읍 상운면에 어렵게 생활하고 계시는 어르신 5분의 가정을 방문해 생필품과 반찬을 전달했고, 회원 4명이 2월 17일 노인복지센터를 방문해 목욕 봉사 및 말벗이 되어 드렸다.

성주군지회(회장 김미경)는 지난 2월 10일 중앙초등학교 졸업식에 참석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졸업의 기쁨을 누리는 졸업생 2명에게 축하인사와 함께 상품권을 전달하며 격려했고, 12일에는 회원 5명이 여성단체협의회 주관으로 열린 불우이웃돕기 바자회에 참여해 떡국 판매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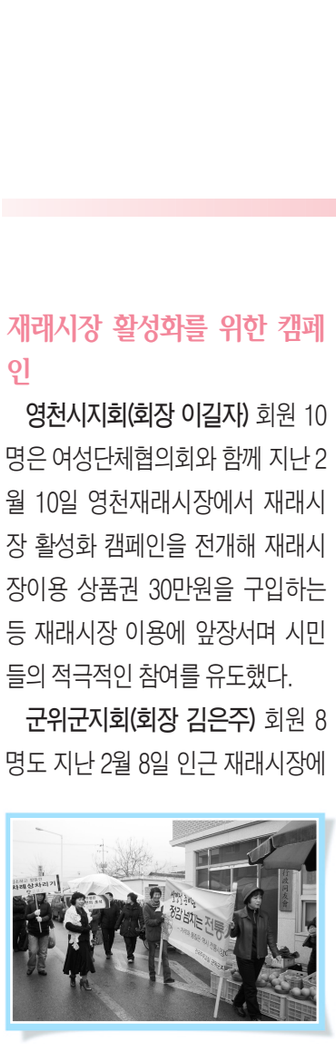
울진군지회(회장 김희자) 회원들은 지난 2월 10일 울진고등학교 졸업식에 참석해 생활이 어려운 졸업생 2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하며 위로 격려했다.

청도군지회(회장 김영자) 회원 5명은 2월 19일 노인치매병원 '에덴원'을 방문해 거동이 불편하시 어르신을 위한 목욕 봉사활동을 전개했다.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캠페인

영천시지회(회장 이길자) 회원 10명은 여성단체협의회와 함께 지난 2월 10일 영천재래시장에서 재래시장 활성화 캠페인을 전개해 재래시장이용 상품권 30만원을 구입하는 등 재래시장 이용에 앞장서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했다.

군위군지회(회장 김은주) 회원 8명도 지난 2월 8일 인근 재래시장에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재래시장 이용하기 캠페인을 전개해 군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했다.



경상남도지부

설 물가조사 및 시내버스 준공영제 점검

도지부(회장 김점숙)에서는 지난 2월 1일~2일 대형할인매장, 수퍼마켓, 재래시장 등 총 20곳에서 설 성수품을 대상으로 가격조사를 실시해 소비자 물가동향을 파악해 물가안정을 도모하고자 했다. 또한 2007년부터 시내버스의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마산시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회원 39명이 110개 시내버스를 대상으로 현금 수입금 확인원으로 활동해 버스회사들의 경영 투명성을 높이는데 기여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지부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

도지부(회장 김영희)는 2월 5일 농산물명예감시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회원 20명이 농산물품질관리원제주지원 직원들과 함께 동문재래시장과 수산시장 일대에서 농산물 원산지표시 캠페인을 전개해 관련 홍보 전단지를 배포하며 농산물 부정유통 근절 및 조기정착을 유도했다.

중앙회 소식

<한국도박중독예방활동단체협의회 창립 총회> 개최

카지노, 경마 등 사행산업의 확산이 사회 문제가 되고 있으며, 특히 도박중독으로 인한 재산탕진, 가정파괴 등의 사회적 손실이 커지고 있어 이에 대한 예방활동이 절실하다.

이에 본회(중앙회)를 비롯한 두란노아버지학교, 사회문화나눔협회,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모임, 한국청소년보호연맹 등 총 10개 단체가 도박중독문제 해결을 위한 예방활동에 앞장서고자 <한국도박중독예방활동단체협의회>를 발족해 지난 3월 5일 본회 3층 강당에서 『(사)한국도박중독예방활동단체협의회 창립 총회』를 개최했고, 본회 이윤자 회장이 초대 회장으로 선임됐다.

동 정

◆ 경북 울릉군지회 사무실 주소 변경

경상북도 울릉군지회가 울릉군 울릉읍 도동3리 330-9번지 꿈나무 어린이집 내 사무실로 이전했으며 전화번호는 054) 791-9191로 변경되었다.

주부교실게시판

▣ 전국주부교실지도자대회 개최

해마다 1박 2일 과정으로 본회 지도자들의 지도력 향상과 회원 간 결속 강화를 위해 개최하는 전국지도자대회를 올해는 "소통과 화합의 세상을 펼치는 전국주부교실지도자대회"라는 주제로 다음과 같이 개최합니다.

- 일　　시 : 2010년 4월 20일~21일(1박 2일)
- 장　　소 : 서울교육문화회관 3층 거문고홀
- 참석대상 : 전국 16개 시·도지부 산하 232개 시·군·구 지회 회장 및 임직원 1200명
- 문　　의 : (02)2265~0637·3627·3628

▣ 의류 및 세탁물 피해 상담 및 구제

본회 소비자정보센터에서는 소비자와 업체간 의류 및 세탁물 관련 분쟁해결을 위해 〈의류심의분쟁조성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련 문제 발생시 다음의 내용을 참조해 소비자 피해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접수시간 : 매주 화요일 9:30~17:30까지
- 접수방법 : 직접 접수 또는 퀵서비스 이용(지방에 한해 택배 가능)
  〈세탁접수·처리부〉 양식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여 첨부
- 접수문의 : (02) 2265-5870, 2273-6300, 2485
- 홈페이지 : www.nchc.or.kr
- 주　　소 : 서울특별시 중구 충무로 5가 19-3

▣ 제75기 주부대학 개강

본회가 운영하는 주부평생교육진흥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주부대학 제74기 수강생들이 6개월간의 교육을 마치고 3월 26일 수료식을 가짐에 따라 제75기 주부대학이 다음과 같이 개강합니다.

- 일 시 : 2010년 4월 5일(월)
- 장 소 : 본회 3층 강당

▣ 등산반 시산제 개최

주부대학 수료생들의 건강과 친목 도모를 위해 모임을 결성해 활동하고 있는 등산반이 다음과 같이 시산제를 개최합니다.

- 일 시 : 2010년 4월 7일(수) 10:30
- 장 소 : 수락산(덕성여대 생활관 뒤편)

▣ 중랑여성인력개발센터 수강생 모집

본회가 여성적합직종개발 및 훈련으로 다양한 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잠재된 직업 적성 능력을 개발하고 향상시키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여성인력개발센터(중랑구 소재)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매달 수강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 홈페이지 : www.womanpro.org
- 문　　의 : (02)3409-1948~9